

2023 세계잼버리 새만금유치단

# 미 웨스트버지니아 야영지 벤치마킹

2019 개최지 방문 통해 득표 활동, 유치 전략과 비전 보완, 개최 후 운영·관리 방안 점검

전북도는 송하진 도지사를 포함한 전북도 2023세계잼버리 새만금유치단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2019세계잼버리 개최지인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 야영지를 방문, 잼버리장 구성 방법 등의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유치성공을 위한 전략을 상세히 살폈다고 31일 밝혔다.

송 지사 등 전북도 유치단은 이날 세계 잼버리장 총괄 책임자 (Mr.Gary Hartley) 브리핑을 통해 2015년 일본 개최지와 2019년 미국 세계잼버리장의 차별화 계획을 알아보고 새만금 세계잼버리 예정지와 주변여건, 미국 잼버리 과정활동등의 특색을 엿보는 기회로 삼았다.

송 지사는 또한 2019년 세계잼버리 테스트 이벤트로 2017년 미국잼버리의 준비사항을 세심하게 귀 기울이고 미국스카우트연맹의 배려로 준비된 헬기를 탑승했다.

이후 야영지를 둘러보며 새만금 세계잼버리 캠프지벨리 등 야외 활동장구성과 첨단 Wifi 사용방안, 상설야영장시설 내용 업데이트로 우리나라 잼버리 유치 전략의 보완 방안을 모색했다.

전북도 유치단 관계자는 "이번 인터아메리카 총회와 2019 미국 세계잼버리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2023 세계잼버리 새만금유치단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2019 세계잼버리 개최지인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 야영지를 사전 답사해 계획하틀리 2019세계잼버리 총괄 책임자에게 설명을 듣고 미국 스카우트연맹에서 준비해준 헬기로 잼버리장을 둘러보며 벤치마킹을 하는 등 유치성공에 대한 전략을 살펴보고 있다.

리장 방문을 통해 득표(유치)활동 뿐만 아니라 2023 세계잼버리 유치 전

략과 비전을 보완하고 향후 세계잼버리 개최 후 지속적으로 운영 관리할

상설 야영지의 미래상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 도, 가뭄·폭염피해 복구비 지원

지난 여름 폭염으로 발생한 농작물 피해 복구비가 11월부터 지원된다.

지난달 31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 지역 폭염 농작물 피해 면적은 2,788ha로 집계됐으며, 이 중 과수(902ha)와 인삼(667ha)이 전체 피해면적의 56%에 달했다.

시군별 피해복구비 지원액은 고창군 4억1,700만원, 장수군 2억9,100만원, 무주군 1억6,000만원 순이다.

이번 피해복구비는 폭염으로 과수 일소피해와 발작물 수량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농가에는 농약대를 지원하고 고온으로 작물이 고사한 경우에는 다른 작물로 파종할 수 있는 대파(代播) 종자대를 지원하게 된다.

한편 전북지역은 올해 7~8월 사이에 낮 기온 33도 이상 폭염일수가 평균 35일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 관계자는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민형 기자

## 지능형 상용차 기술개발 연구장비 도입한다

자동차융합기술원, '자동차급제동장치 평가 장비' 등 3종 22억원 심의 통과

전북도가 자동차산업 기술구조 고도화를 위해 구축을 추진 중인 '지능형 상용차 운전장치 연구개발장비' 등에 대한 정부 장비도입심의를 통과했다. 31일 전북도에 따르면 자동차융합기술원(원장 이성수)은 지난 10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에서 실시한 연구시설장비도입심의에 '지능형 상용차 운전보조장치 연구개발(평가) 시스템' 등 3종 22억원의 장비구축 심의를 요청한데 대해 지난달 28일 승인이 이뤄졌다.

이번에 심의 통과된 장비에는 11미터 이상 버스와 총중량 20톤 이상의 화물 및 특수차에 적용이 의무화된 '자동차급제동장치(AEB)'와 같은 상용차의 지능형운전 보조장치를 평가하는 장비와 이들 부품의 내구 신뢰

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안정성을 평가하는 장비가 포함돼 있다.

주요 구성으로는 상용차량에서 운전자를 대신해 조향 및 가속 등의 주행과 브레이크 제어를 무인으로 할 수 있는 로봇과 차량과 차량, 차량과 사물간의 통신 및 상대계측이 가능한 연구 장비가 포함되어 있다.

'자동차급제동장치(AEB, Autonomous Emergency Braking)'는 차량 전면부에 부착한 레이더가 위험을 감지하면 운전자에게 경고를 보내거나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작동하도록 하는 기술이다.

특히 자동차급제동장치(AEB)는 최근 영동고속도로 병령 터널 6중 추돌 사고처럼 한번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버스나 대형 트럭의 안전성

을 확보해야 하며 자동차 업계의 차세대 먹거리인 자율주행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어 업체 간 경쟁이 뜨거운 기술이다.

전북도 상용차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위해서는 관련 부품업체의 참여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개발장비의 도입이 요구돼 왔다.

자동차융합기술원의 이성수 원장은 "기술원은 미래 상용차산업의 기술트렌드에 부합하는 지원기반 구축을 위해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상용차부품주행시험장의 공정률이 43%에 이르렀다"면서 "자동차급제동장치 등 상용차의 핵심기술개발과 국가 차원의 높은 연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완성차 및 부품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 전주시, 가을철 산불 비상체계 가동

12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운영

전주시가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산불예방을 위한 비상체계에 돌입했다.

전주시는 가을철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발생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11월 1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올 가을은 맑고 고온 건조한 날이 많고, 강수량도 예년에 비해 적을 것으로 예보되고 있다. 또, 단풍철을 맞아 산행인구가 증가하는 등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는 산불발생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산불발생시 초동진화를 위해 관망이 잘되는 산 정상에 감시원 25명을 배치하고, 산불 취약지에 이동감시원 12명과 진화대원 90명 등 총 127명을 거점 배치하는 등 가을철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한 감시원과

진화대원들은 앞으로 빈틈없는 산불 감시와 순찰·계도 활동을 하게 되며, 산불발생 시 즉시 출동해 산불진화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시는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해 인접 시·군과 소방서,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유사시에는 입차헬기(3대)와 산림청헬기(4대)를 지원 요청하는 등 신속한 진화활동으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산림자원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산불이 자주 발생한 학산 주변 산불방화자 검거에 결정적 증거를 제공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시민들께서도 산에 오를 때에는 취사행위 금지, 인화물질 안 가져가기(담배, 라이터), 불을 피우는 행위 금지, 산림인접지역에서 소각안하기 등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재 기자

## 도내 첫 소방정 군산 비응항 배치

전북도 최초 소방정이 군산 비응항에 배치돼 운영된다.

도에서는 처음으로 운영되는 소방정이 군산에 배치됨에 따라 신속한 출동할 수 있으며, 신속한 출동을 위해 1800마력짜리 고속 디젤엔진 2

대가 장착돼 기동성을 확보했다. 전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서해안 횡단·선박화재 및 도서지역 긴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비응항에 소방정을 배치한다.

군산항의 경우 입·출항하는 외항선들에게 전북을 소개할 수 있는 첫 관문이자 얼골로서 전북의 이미지를 대외에 소개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소방정이 배치되지 않아 항만과 도서지역의 재난대응력 확보를 위해 소방정 배치가 절실하게 요구돼 왔다.

이번에 배치되는 소방정은 64급(길이 30.7m, 폭 5.4m, 깊이 2.5m)으로 최고 속력은 27노트(50km/h) 14명까지 승선할 수 있으며, 신속한 출동을 위해 1800마력짜리 고속 디젤엔진 2대가 장착돼 기동성을 확보했다.

소방정은 분당 4000리터의 소화수를 방출할 수 있는 고성능 소방펌프 2대와 포 소화 설비, 인명구조장비, 구급장비 등 80종 391점의 장비를 갖추고 있다.

전북도 소방본부는 항만 수요가 많은 군산항과 부안 격포항 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비응항에 소방정을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9명의 인력을 추가로 배치해 효율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군산=문정곤 기자

##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단협의회 감사 선출

전국시군자치구의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단협의회 감사에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전북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장)이 선출됐다.

전국시군자치구의의회 의장단협의회는 31일 울림파크호텔 서울홀에서 제196차 시도대표회의를 열고 제7대 후반기 협의회를 이끌어갈 회장, 감사 등 임원 선출 및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협의회 감사로 선출된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은 후반기 협의회 운영

에 참여하게 된다.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은 "전국시군자치구의의회 의장단의 단합된 목소리를 통해 지방자치와 기초의회 발전에 앞장서겠다"면서 "앞으로 협의회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협의회 회장에는 청주시의회 황영호 의장이 선출됐으며 수석부회장, 사무총장, 대변인 등은 다음 회의 때 결정하기로 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